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사순 시기**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열심히 기도할 시간을 선택하도록 우리 앞에 제시하십니다. 사순 시기는 단순하고 작고 감추어진 것으로 돌아갈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마음을 깨끗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을 살게 된 것이지요! 죽음과 질병, 희망과 두려움의 광경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이 되고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이들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침묵과 희망 속에서 기도하고 관상함으로써만 빛나게 할 수 있는 빛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사순 시기에, 우리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로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교황님은 사순 담화에서, 우리 회개의 조건이며 표현인 **단식, 기도, 자선**을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사랑의 신비에 깨어있게 해 주는 **기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분 말씀에 매혹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무상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생생한 희망, 실천하는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해 주고,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침잠과 침묵 안에서 우리 사명의 도전과 결정들을 비추어 주는 영감이며 내적 빛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미소나 격려의 말, 또는 그저 들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하여 자신의 염려들을 미루어 두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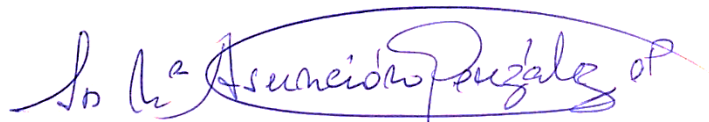
**단식.** 결핍을 경험하고 곤궁한 이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비심을 열어놓기 위한 것인 단식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가 가난하고 곤궁한 이들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느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과 나누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교황님은 우리에게, 나눔은 우리를 더 인간적이 되게 하며 축적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이기심에 갇혀 짐승처럼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덕**은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선물입니다. 애덕으로 사순 시기를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겪는 이들, 우리 시대의 재앙에 희생된 이들, 버려진 이들, 코로나 19 로 인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 시기에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인간적인 삶을 살기를 배우도록 합시다. 하느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 삶을 치유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슬픈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이 사순 시기에 우리를 결연히 깨어 있도록 지켜 주시며 우리에게 매일 하느님 자녀의 자유를 기쁘게 살기를 배우도록 우리 자신을 버리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형제적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sup>re</sup>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